

또 다시 설렘, 목포에서 일주일 살기

오늘부터 최소 4박~최대 6박 총 4회차 80팀 선정 다양한 연령층 타겟으로 세대별 다른 주제로 운영

목포시와 목포문화재단이 작년에 이어 추진하는 '목포 일주일 살기'가 예약 문의가 벌써부터 쇄도하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일주일살기(SAFE하게 FLEX하자!)는 '목포에 체류하며 아름다운 경관을 보고(SEE),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하고(ACT), 문화예술을 느끼고(FEEL), 목포의 9미(味)를 맛보며(EAT), 다른 사람들에게 목포를 자랑하자(FLEX)'를 골자로 하는 체류형 관광 프로그램이다.

특히, 올해는 목포에서 환경도 생각하며 의미있는 여행을 즐기자는 취지에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바탕으로 탄소배출 감소와 일

회용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친환경 사업도 함께 운영한다.

작년과 마찬가지로 올해도 총 4회차에 걸쳐 최소 4박에서 최대 6박 일정으로 진행되는데 폭넓은 계층의 여행객을 유입하기 위해 시는 회차별 다른 주제와 다양한 연령층을 타겟으로 설정했다.

1회차는 '독립문화 다 모여라'라는 주제로 독립서점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경험할 수 있다. 2회차는 '모여라 MZ야~'라는 주제로 2030 세대를, 3회차는 '응답하라 1988'라는 주제로 4050 세대를 각각 겨냥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4회차는 목포뮤지컬레이 기간에 맞춰 전

국 음악인들과 함께하는 프로그램으로 진행할 예정이며, 자세한 내용은 목포문화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회차별로 20개팀(팀당 1~4인)을 모집하는 가운데 1·2회차는 오는 7월 11~27일까지 모집하며, 운영기간은 각각 8월 16일~22일, 8월 23일~9월 4일이다. 참가자로 선정되면 체류기간(4~6박)동안 팀 인원수에 따라 1박당 4~7만원의 숙박비가 지원되는 가운데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 및 관광지 입장료 할인 혜택도 제공된다.

일주일 살기 참가자는 SNS 업로드, 인생샷 찍기 등 간단한 미션을 수행하고, 참여 종료 후에는 결과보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일주일 살기의 자세한 내용은 목포문화재단 홈페이지(<http://mpcf.wbchain.co.kr>)에서 확인하거나 전화(070-4351-3060)로 문의하면 된다.

목포=기동취재본부



영광의 절경, 낙조가 아름다운 해수욕장 개장

8월15일까지...3년 만에 마스크없이 입장 가능

영광군은 7월 8일부터 8월 15일까지 가마미해수욕장을 개장하고 7월 23일부터 8월 15일까지 송이도해수욕장을 운영하여 본격적인 피서철 손님맞이에 나섰다.

두 해수욕장 모두 이용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올해 해수욕장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도 입장이 가능하다.

군은 올해 해수욕장 운영의 최우선 목표를 안전에 두고, 해양경찰서, 소방서,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이동 진료실 운영 및 자체 안전 관리요원 등을 충분히 확보하여 사고 없는 해수욕장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

이다.

또한, 가족단위 관광객이 즐길 수 있는 카라반, 몽골텐트, 야영데크 등 캠핑시설 및 휴식공간을 정비하였으며 특히 꽃담, 꽃바구니 등을 설치하여 가마미해수욕장만의 특색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였다.

강종만 영광군수는 "각종 시설물 보안을 통해 관광객 편의 증진은 물론 아름답고 낭만이 있는 해수욕장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친절한 관광객 맞이와 건전한 행락질서 유지로 올해 방문한 피서객들이 내년에도 다시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영광=서희권기자

영암군, 공공심야약국 운영... '으뜸약국' 선정

연중무휴 오후 10시~익일 오전 1시까지 운영

공공심야약국은 심야와 공휴일 등 취약 시간대 국민의 의약품 접근성 보장뿐만 아니라 안전 사용을 위해 연중무휴 밤 10시부터 새벽 1시까지 약국을 운영하는 제도로 영암읍 '으뜸약국'이 공공심야약국으로 선정됐다.

공공심야약국은 의료 취약 시간대인 휴일과 심야에 주민이 약사에게 복약지도와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운영하는 약국으로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공휴일을 포함해 매일 밤 10시부터 다음날 새벽 1시까지 시범 운영된다.

이번에 공공심야약국으로 선정된 으뜸약국의 운영시간은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 30분, 오후 10시부터 익일 오전 1시까지 △토요일 오전 8시부터 오후 12시, 오후 10시부터 익일 오전 1시까지 운영하며, 일요일 및 공휴일은 오후 10시부터 익일 오전 1시까지만 운영한다.

영암군보건소 관계자는 "공공심야약국 운영은 영암군민의 심야시간대 약품 구매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고, 의약품 오남용 예방



과 안전한 투약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심야 시간에만 운영하는 특성상 약국 휴게시간이 있으므로 방문 전 운영시간을 반드시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영암=조대호기자

무안군,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3명 선발

무안군은 2022년 상반기 적극적인 업무 추진으로 군민 편의를 증대하고 적극행정 조직 문화 확산에 기여한 우수공무원 3명을 선발했다고 밝혔다.

적극행정 최우수 공무원으로는 지역주민과 농공단지가 함께하는 문화거점공간을 마련한 김윤택 지역경제과 산단관리팀장이 선정됐다.

적극행정 우수 공무원으로는 지적불부합과 경계분쟁으로 인한 지적재조사사업 수요 증가에 맞춰 역대 최대 사업량을 추진한 민원지적과 이형주 주무관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또한 양파-마늘 일관기계화로 노동력과 인건비를 절감해 농촌 인력부족 해결과 경쟁력 향상에 기여한 김미양 친환경농업과 원예특작팀장이 장려상을 수상했다. 무안=이기성기자

신안 홍도, 인공증식 멸종위기 참달팽이 최초 방사

신안군은 국립생태원(원장 조도순)과 공동으로 7월 8일 국립생태원 연구시설에서 인공증식한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 참달팽이 20마리를 신안군 홍도 원서식지에서 방사한다고 밝혔다.

현재 홍도 참달팽이는 마을 인근에서 주로 발견되며, 이 중 개체밀도가 가장 높은 주요 서식처에서도 약 5마리/100㎡ 정도만 발견될 정도로 개체군의 크기가 매우 작다.

국립생태원은 2018년 홍도에서 참달팽이 5개체를 도입하여 국내에서 처음으로 기초생활사를 구명하였으며, 2022년 현재 인공증식한 참달팽이 개체수는 총 65마리



로 늘어났으며 인공증식하는데 성공했다.

이번 참달팽이 방사는 홍보 효과를 높이기 위해 '문화와 예술이 함께하는 홍도 섬 원주리 축제'라는 주제로 지난 8일부터 17일까지 개최되는 섬 원주리 축제 일정에 맞춰 진행하였다.

신안=이덕주기자

함평군 귀농어귀촌 체류형지원센터, 선도농가 견학

함평군이 귀농어귀촌 체류형지원센터 입교생을 대상으로 지난 7일 관내 선도농가 견학을 실시했다.

8일 군에 따르면 체류형지원센터 입교생 12명은 지난 7일 육묘장(이경주), 이향만 농가(포도), 명희봉밀(조윤정, 양봉) 등 관내 6개 선도농가를 방문했다.

이번 교육은 예비 귀농·귀촌인들이 선배 농업인들과의 교류를 통해 안정적으로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입교생들은 이날 선배 농업인들로부터 농업 경영 및 기술 노하우, 귀농 성공전략 등 현장의 생생한 귀농 정보를 얻을 수 있었다.

견학에 참가한 입교생 오상훈 씨는 "귀농에 대한 정보를 얻기가 쉽지 않았는데 이번 현지 견학이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말했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예비 귀농귀촌인들이 성공적으로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함평=김광훈기자

**아세요?
한수원이 요즘 바쁜 이유**

온실가스를 없애고
미세먼지는 줄이고
기후변화까지 막는
지구를 살리는 바른 에너지를
세계 곳곳에서 만들고 있거든요

**한수원은 지금
바른 에너지 개발로 열일 중**

한국수력원자력주